

지역 소식통

김제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실무협의회 개최

김제시는 친환경 농산물의 식재료 사용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 8일 오후 3시 김제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센터에서 김제시, 김제교육지원청, 영양교사, 생산자단체, 학부모단체 등 실무협의회 회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품목 및 단가를 결정하고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품목 확대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실무협의회장은 "우수농산물 식재료의 지원으로 학교 급식의 질은 높이고, 학부모 부담은 줄였으며, 농업인 및 농식품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전액을 지원 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구입 품목은 감자와 고구마, 무, 양배추, 양파, 오이, 대파 등이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센터는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원을 받기 위해 합쓰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세외수입 운영평가 '우수 기관' 선정

완주군이 지방재정 확충 및 세외수입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17년 전라북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선별 평가에서 군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2016년 결산기준 세외수입 징수율, 현년도 과태료 징수실적, 체납처분실적 등 5개 분야, 7개 지표로 이뤄졌다.

군은 부서별 징수보고회를 정례화해 이월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한 결과, 이월 체납액 징수율이 전년 대비 162% 이상 향상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정확한 부과와 징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군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은 "세외수입은 완주군의 자주재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신규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이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 조성을 위한 '그림책 포럼'을 이달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삼례책마을에서 개최한다.

완주군, 그림책 포럼 개최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그림책의 새로운 가치 발견·재조명

완주군이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 조성을 위한 '그림책 포럼'을 이달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삼례책마을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그림책에 관심있는 주민과 그림책 연구 동아리, 지역 문화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림책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재조명하는 동시에, 그림책 미술관 조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여론조성을 위한 자리다.

포럼에서는 아동평론가 김지은 작가가 0세부터 100세까지 읽는 모두를 위한 그림책으로, 정승각 작가가 그림책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각각 그림책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들려줄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11년 책마을 조성을 위

해 선진 유럽을 벤치마킹한 후 2012년부터 책마을 및 책공방 건립 계획의 수립, 2013년 책공방 건립, 그리고 지난해 8월 책마을문화센터 개관까지 책 문화 확대를 위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출판과 기록이 중심인 '책공방 북아트센터'에서는 어르신대상 자서전학교와 지역청년들을 위한 지역출판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책마을 문화센터는 고서점, 헌책방, 아카이브센터 등을 통해 전문가와 관광객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군은 또 포럼 등을 통해 그림책 미술관 조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그림책은 그동안 어린이들이 읽는 책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는 등 문화적·교육적 가치와 함께 예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실제 아동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보림출판사는 30여년간 그림책의 순수한 예술성을 고집한 덕분에, 대별별로 1개 출판사에 주어지는 2017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올해 최고 아동 출판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은 그림책 미술관 조성을 비롯해 책문화 확대와 더불어 책과 문화, 예술이 하나 되는 책마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귀농귀촌홍보관 성황리 운영

귀농인들의 소득 증대·안정적인 정착 위해

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회장 조정희)는 추억의 보리밭 축제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귀농귀촌홍보관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귀농귀촌홍보관은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김제시의 귀농귀촌 정책사업 홍보 및 상담을 인구조입을 유도하였으며, 귀농인들이 생산한 백향과, 딸기, 감자, 보리, 무, 배추 등 농산품을 판매하여

귀농인들의 소득증대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 됐다.

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조정희 회장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농경 문화 발상지이며 전국 최대의 농업도시인 지평선 김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가 축제, 박람회 등에서 귀농귀촌 홍보관 운영, 수도권 귀농학교, 도시민 귀농귀촌 교육 및 상담, 귀농귀촌

멘토링 교육, 지역주민과 귀농인과의 화합한마당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준기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는 귀농귀촌사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귀농귀촌인들에게 귀농귀촌정보와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면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에 큰 역할을 있다. 김제시는 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와 함께 귀농귀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트로트 열전 "내 나이가 어때서?"

12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서

어버이날 기념 실버세대를 위한 트로트 열전 "내 나이가 어때서?"가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트로트 대항연으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2017년 한문연에 공모 선정된 공연 프로그램으로 김제시민과 함께하는 "함께해요! 예!예(禮)!예(Yes)!"이며 어린이, 청소년층,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5월 기획공연에서는 장년, 노년층을 겨냥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1976년 "너무합니다"로 데뷔해 "명예", "남행열차", "잃어버린 정", "예모" 등 다수 히트곡으로

끊임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수희, 걸그룹 오로라 출신으로 가요무대 등 많은 활동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신인 트로트 가수 권민정, 그리고 "나훈아 닮은 꼴" 가수로 과거 런닝맨에 출연하여 트로트 가수 답지 않은 외모와 입담으로 이름을 알린 마아성 등으로 무대가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김제문화예술회관이 중장년층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공연으로 생활에 지친 심신을 공연을 관람하며 맘껏 날려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대상자 '선정'

완주군이 올해 10가구의 다문화 가족 친정나들이에 도움을 준다.

군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2017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개최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방향을 총괄 조정하고, 이달부터 추진 예정인 고향방문 나들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은 경제

적 사유로 모국을 다녀오지 못하는 이주여성을 위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왕복항공비, 여행정보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약 68가구가 모국방문사업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10가구가 이달부터 각자의 일정에 맞게 고향을 방문하게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도서관·다문화·청소년 화합 한마당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함께하는 "2017년 도서관·다문화·청소년 화합 한마당(2차)"을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5층 문화교실에서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준비하여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비롯한 관내 초등학생을 기다리고 있다.

이 행사는 전주근영여고, 전북과학고, 전주고, 양현고, 한국전통문화고의 수학·과학 동아리, 요리 동아리

학생들이 김제지역 다문화 어린이 및 관내 초등학생의 멘토가 되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의 형태로 진행된다. 매년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이들이 항상 기다리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두번째로 치러지는 이 행사는 리트머스종이색깔 변화 실험 DNA비즈만들기등 수학과 과학을 이용한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작지만 맛있는 꼬마 김밥만들기 요리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선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